

[보도자료] 쿠팡친구 돕는 쿠팡만의 기술 담은 영상 공개

2022. 3. 18.



- 물류 분류를 자동화 한 '오토소터' 도입 일 10만개 상품 자동 분류
- 물류 분류 전담 인력 '헬퍼' 운영해 쿠팡친구는 분류 업무 하지 않아
- 업무용 RDA로 배송량 부터 경로까지 쿠팡친구 업무 비효율 개선

2022. 3. 18. 서울 – 쿠팡은 배송 캠프 내 물류 분류와 쿠팡친구들의 배송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소개하는 “캠프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쿠팡의 기술 혁신” 영상을 18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개했다.

쿠팡은 배송캠프 내에 물류 분류 과정을 자동화하여 작업자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동 분류 시스템인 오토소터를 도입했다. 오토소터는 매일 최대 10만개의 상품들을 자동으로 분류해 분류 담당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일반적인 분류 시스템은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을 작업자가 송장에 적힌 주소별로 택배 물량을 하나하나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오토소터는 자동으로 상품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옮겨주기 때문에 분류 담당자가 힘들이지 않고 정리만 하면 된다. 실제로 용인1캠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캠프 작업자들은 “분류가 편해졌다”며 “쉽고 편리하게 업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기술은 실제로 상품을 배송하는 쿠팡친구들의 업무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물류거점에 출근해서 업무용 PDA를 켜면 본인에게 맞는 업무량과 배송지역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매일 캠프로 들어오는 물량, 그 날 출근 인원 등 여러가지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에서 쿠팡친구마다 적합한 물량이 배정된다.

또한 쿠팡친구는 분류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타 택배사와 달리 캠프 내 자동 분류 시스템과 분류 전담 인력인 헬퍼들이 상품을 미리 분류해 둔다. 쿠팡친구는 할당된 물량을 챙겨 쿠팡카에 실기만 하면 된다. 쿠팡친구가 쿠팡카에 상품을 적재하는 방식도 타 택배 차량과 다르다. 쿠팡카에는 옆면 슬라이딩 도어와 선반이 있어 정리하기도 쉽고 물건을 찾기도 훨씬 수월하다.

실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용 PDA 내부 시스템이 쿠팡친구의 배송 효율성을 돕는다. 배송할 때 동네별로 신선식품 배송지가 어딘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PDA가 최적의 배송 경로를 짤 수 있게 도와 배송 업무가 쉬워진다. 또한 배송지 정보가 PDA에 한 번에 확인되기 때문에 배송과 프레시백 회수 등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고객 배송지에 두 번 방문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로 배송 전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작업자들의 업무가 쉽고 편리해지고 있다”며

“쿠팡은 쿠팡만의 기술력으로 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